



나성범

# FA 최대어 나성범 고향팀서 '눈독' KIA 유니폼 입을까



야시엘 푸이그

## LA 다저스 출신 '악동' 야시엘 푸이그 키움 입단 '화제' '명가재건' 노리는 KIA, 최대 약점 홈런타자 영입 관심

'악동' 푸이그가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댄다. 키움이 9일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출신의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Yasiel Puig·31)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쿠바 출신의 푸이그는 '류현진의 절친'으로도 한국 야구팬들에게 친숙한 선수다. 그에게는 '악동'이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닌다. 다저스 시절 팀의 에이스였던 클레이턴 커쇼와 갈등을 빚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돌발행동을 이어가면서 '악동'으로도 불렸다. 2012년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약을 통해 다저스에 입단한 푸이그는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6시즌 동안 다저스에서 활약했다. 이후 신시내티 레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면서 메이저리그 통산 7시즌 861경기에 출전해 3015타수 834안타 132홈런 441득점 415타점 타율 0.277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멕시코리그에서 타율 0.312, 홈런 10개, OPS 0.926을 기록하며 수비상을 받기도 했다.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선수이고 스타상까지 갖추고 있어 푸이그의 한국행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롯데 자이언츠도 마차도를 대신할 선수로 올 시즌 다저스에 빅리그에 데뷔한 DJ 피터스(DJ

Peters·26)를 영입하는 등 새 얼굴들이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대어'의 움직임은 스토브리그의 '화룡점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겨울 FA 최대어는 NC 다이노스의 외야수 나성범이다. 그는 KIA 타이거즈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자원이기도 하다. KIA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 대표·단장·감독을 동시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새 출발선에 섰다. 그리고 나성범 영입에도 공격적으로 나서며 새판을 짜고 있어 주목된다. 명가재건을 다짐한 장정석 단장은 "리빙딩이라는 단어는 명문팀 KIA 타이거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성적과 미래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인사를 통해 '예산' 카드를 쥐고 있는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이 야구단과

지 말아 변화 움직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KIA는 앞서 FA 시장의 '조용한 큰 손'으로 통했었다. 김주찬, 이범호, 최형우를 깜짝 영입을 하는 등 '통 큰 지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FA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명가재건을 노리는 KIA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장타력이다. 그리고 올 시즌 1244이닝이라는 KBO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 기록을 작성하며 우익수 자리를 지켜준 최원준도 군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만큼 '한 방 있는 우익수' 나성범은 KIA가 찾는 최고의 자원이자, 화제 반발의 푸이그를 영입하며 스토브리그를 깨운 키움에 이어 KIA가 FA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타이거즈, 골든글러브 수상 못하면 '역대 최다 수상 팀' 기록 넘겨줄 듯

KIA, 해태 포함 68명·삼성 67명 '호랑이 군단'의 골든글러브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이 위협받고 있다. 2021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후보로 선정된 84명 중 단 10명이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단상에 오르게 된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임기영·장현식·정해영(이상 투수), 김선빈(2루수), 김태진(3루수), 박찬호(유격수), 최원준-터커(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 등 9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홀드왕' 장현식과 '최연소 30세이브' 정해영 앞에는 'MVP' 미란다가 버티고 있다. 김선빈이 팀 유일의 3할 타자로 자존심을 지켰지만, 롯데 안치홍과 한화 정은원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최원준은 KBO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 기록을 작성했지만, 외야는 말 그대로 전쟁터다. KIA는 해태 시절 포함 68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역대 최다 수상' 팀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6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 삼성이 포수 강민호와 외야수 구자욱을 앞세워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삼성이 KIA와 골든글러브 역사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지 아니면 순위를 바꾸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후보에 오른 선수 중 최다 수상자는 6개의 '황금장갑'을 품은 양의지(NC), 최정(SSG), 이대호(롯데), 최형우(KIA) 등 4명이다.

수상이 유력한 양의지와 최정이 다시 한번 이름이 호명되면 김동수, 이병규와 함께 역대 최다 수상 공동 3위(7회)에 자리하게 된다. 골든글러브 역대 최다 수상자는 이승엽으로 10차례 골든글러브를 들어 올렸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홈런왕 타이틀을 탈환한 최정이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경우, 3루수 역대 최다 수상자(8회)인 한대화와 뒤를 잇게 된다. 양의지는 7번째 수상과 함께 '최고 득표율'에도 도전한다. 양의지는 지난해 포수 부문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99.4%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명타자 후보로 나선 윤희도 타점과 장타율 부문을 석권하고 '30홈런-100타점', 사이클링 히트까지 이룬 만큼 양의지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타격왕' 이정후의 4년 연속 수상도 관련 포인트다. 이번에도 이정후의 이름이 불리면 4년 연속 외야수 부문 수상에 성공, 손아섭(롯데)과 역대 외야수 최다 연속 수상 공동 2위에 오르게 된다. 외야수 역대 최다 연속 수상 기록은 '5회'로 장효조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연달아 골든글러브를 챙겼다. 외야는 이번 골든글러브 최대 격전지다. 타율 1위 이정후와 함께 득점 1위 구자욱(삼성), 출루율 1위 홍창기(LG), 최다 안타 1위 전준우(롯데) 등 경쟁한 선수들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김재환(두산), 나성범(NC), 손아섭, 최원준 등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외야 경쟁이 뜨겁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 호주오픈 대회 불참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41위·미국)가 부상으로 내년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에 불참한다. 호주테니스협회는 8일(현지시간) 호주오픈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참가자 명단을 발표했다. 오픈 시대 이후 이 대회 최다 7차례 우승 타이틀을 보유한 윌리엄스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올해 40세인 윌리엄스가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않는 것은 출산 때문에 대회를 거른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윌리엄스는 호주오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체적으로 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음 기회에 개최지 멜버른의 팬들 앞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페퍼스, 서브·리시브가 살아난다

### GS칼텍스에 0-3 졌지만 분위기 반전에 '신나는 배구' 12일 인삼공사전 승리 기대

AI페퍼스는 가장 힘든 순간 더 활짝 피어났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는 지난 8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GS칼텍스에 0-3(19-25, 21-25, 20-25)으로 패했다. 배아폰 0-3 셋아웃 패배였지만,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의 표정은 밝았다. 김 감독은 "점수는 못 났지만,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분위기 반전도 됐고, 선수들도 열심히 했다"며 "지난번 두 게임에서 처했던 분위기를 잘 뒤집은 것 같다"고 후련한 심정을 전했다. 최근 AI페퍼스 선수들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2라운드를 통틀어 승점 단 1점만을 획득한 채 7연패를 기록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가던 차였다. 김 감독도 경기 중 "마음 놓고 플레이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선수들에게선 눈에 띄게 웃음기가 줄어들었다. 더구나 지난 8일에는 아직 1세트도 뺏어오지 못한 유일한 팀, GS칼텍스를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AI페퍼스는 우려를 털고 오랜만에 시즌 초반과 같은 '신나는 배구'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살아난 서브가 고무적이었다. AI페퍼스는 이날 지금까지 가장 많은 횟수인 서브에이스 8회를 성공시켰다. 엘리자벳이 3차례 상대 리시브를 뚫었고, 선발 멤버인 박경현-하혜진-이한비-최가은-이현이 골고루 서브에이스를 기록했다. 서브는 AI페퍼스의 '고질병'이었다. 서브가 가장 많이 흔들렸던 1라운드 흥국생명전에서는 31개 범실 중 서브로만 20점을 내줬다. 역설적이게도 당시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서브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상황이었지만, 실력보다는 '부담감', '멘탈'이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했다. 김 감독은 "여자배구는 컨디션, 팀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스트레스 쌓이거나 세트 안맞으면 누구라도 실수하게 돼 있다"며 "서브나 리시브 등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압박이 생길 것 같아 아예 잊어버리라고 주문해줬다. 부담감 없이, 승패 떠나서 분위기를 계속 올려주려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배려 덕인지 범실도 확연히 줄었다.



AI페퍼스 선수들이 8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서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KOVO 제공)

AI페퍼스는 이날 GS칼텍스 17회를 밀도는 15회 범실만을 기록했다. 이 중 서브 범실은 7번 뿐이었다. 전보다 단단해진 수비 집중력에 눈에 띄었다. 불안전하게 리시브된 볼이라도 이한비, 문슬기가 관중석까지 달려가 살려오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등 '근질근 플레이'가 살아났다. 눈 깜짝할 새 쫓히는 GS칼텍스 모마의 강력한 스파이크도 수차례 디그해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혜진도 이날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50개를 달성(99호)하면서 센터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가은도 혼신의 디그로 볼을 살려내며 상대의 멘탈을 흔들었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상승세다. 간헐적인 발뒤꿈치 통증 때문에 최근 컨디션 난조에 시달렸던 박경현도 이날 11득점(공격 성공률 40%)으로 활약했다. 그간 공격수와 호흡이 다소 아쉬웠던 구슬도 세트 5회 중 4회를 성공, 팀에 활 녹아든 모습이었다. 김 감독은 최근 잇따라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신인 박은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김 감독은 박은서를 라이트로 기용해 엘리자벳을 대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엘리자벳은 현재 높은 공격 부담에 피로가 쌓여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김 감독은 "이 정도만 해 줘도 된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면 더 좋다"며 "자신감으로, 의식적으로 할 생각이다. 초심 잃지 않고 재미있게, 열심히, 신나는 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페퍼스타디움 3층 50% 할인 행사 한편 AI페퍼스는 오는 12일 오후 4시 페퍼스타디움에서 KGC인삼공사를 상대한다. 12-16-25일 열리는 홈경기에서는 페퍼스타디움 3층 관람석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인 4000원에 판매한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좌석 예약은 필수이며 예매사이트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 16일부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페퍼스타디움에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출일 48시간 이내 PCR검사를 완료했다는 음성확인서(문자 또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는 접종완료자도 간주하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있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면 좌석을 땀 필요 없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